비구니계 '밝은 별'이 들려주는 삶

〈明星〉



명성 스님 수행록
김광식 지음 / 불광출판사
2만5000원

명성 스님 구술 · 회고 집대성
세수 94세 어른스님의 이야기
한국 비구니사 정립 초석 기대
관응 · 탄허 · 자운 스님 등 인연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법호와 법명 단 네 글자만으로 한국 현대 비구니사를 상징하는 스님이 있다. 바로 법계 명성(法界 明星)이다. 올해 세수 94세인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사진〉은 우리나라 비구니계의 산증인으로서 삶이 곧 역사다. 비구니계의 원로이자 가장 큰 어른인 명성 스님이 그동안 배출한 비구니만 2200여 명. 전체 비구니 6000여 명 가운데 30%를 넘는다.

생애 자체가 기념비적인 명성 스님의 구술과 회고를 집대성한 책 〈명성 스님 수행록〉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스님의 구순을 맞아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20권 분량의 〈법계명성 전집〉을 낸 불광출판사가 다시 명성 스님의 이야기를 펴냈다. 지은이는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이미 스님의 전집이 발간됐지만 수행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책을 쓴 이유는 명확하다. 명성 스님이 현대 비구니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육성 증언에 의한 회고록은 없기 때문. 그동안 발간된 대부분의 증언 자료집이 주로 비구스님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저자의 열의를 불태우게 했다. 또 이렇게 정리한 명성 스님의 구술은 한국 비구니사 정립에 초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책은 크게 △1부-회고로 본 나의 삶 △2부-인연으로 본 나의 삶으로 나뉜다. 1부는 스님의 가족 관계부터 유년시절, 출가생활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았고, 2부에선 관응 · 탄허 · 자운 · 경봉 등 한국불교에서 내로라하는 큰스님들과 있었던 일화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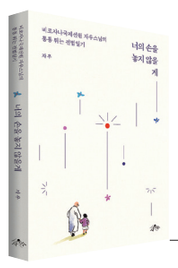
명성 스님은 193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1952년 합천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3세 되던 해, 대강백으로 손꼽힌 부친 관응 스님이 출가의 길을 권유한 것이다. 이후 명성 스님은 1958년 선암사에서 성능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고, 선암사와 청룡사 강원 강사를 거쳐 1970년 운문사 승가학원 강사로 취임했다.

1977년부터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주석하면서 현재까지 2200여 명의 졸업생과 23명의 전강제자를 배출하는 등 비구니 수행과 교육에 헌신했다. 아울러 40여 동에 이르는 전각과 요사채를 신축 · 보수해 운문사를 전국 최대 규모의 비구니교육기관인 운문승가대학으로 발전시켰다.

명성 스님은 또 최초로 비구니가 비구니로부터 전강을 받는 전통을 만들어 한국 비구니사에 한 획을 그었다. 1983년 명성 스님은 평소 존경했던 화산당 수옥 스님에게 법제자로 위패 건당을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만들고, 1985년 흥륜 · 일진 스님 두 제자에게 전강을 함으로써 기둥을 만들었다. 이 전강 의식은 비구니 역사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비구니 강사가 배출돼 비구니를 직접 가르치는 이부승 제도가 되살아났기에 끊어졌던 강맥을 복원한 명성 스님의 업적은 더욱 빛을 발했다.

〈명성 스님 수행록〉은 명성 스님이 한국 근현대 불교를 관통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직접 생생한 구술로 풀어놓은 회고담이다. 여기에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는 김광식 교수가 정리해 하나의 사료집으로도 가치가 높다.

자우 스님의 통통 튀는 전법일기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스님 / 사유수출판사
1만7000원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부처님 당신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및 국제포교 활동에 열정을 쏟아온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이 포교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사연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출가 30년. 자우 스님은 그중 도심포교에 20년을 보냈고 그 사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문에 자신만의 열정적인 포교 이야기를 솔직 · 경쾌하게 연재해 왔다. 그리고 그간 공개된 신문 연재물들에 '출가' 이야기를 덧붙여 70편의 에피소드를 자신의 첫 에세이집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에 담았다.

자우 스님은 지난 2006년, '불교의 세계화'와 '불교인재 양성'을 발원하며 서울 홍제동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님의 포교활동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겠다는 출가 원력을 잊지 않는 자비심과 보살행의 여정이었다.

참선과 영어를 접목한 프로그램인 어린이 영어담마스쿨, 영어담마캠프, 영어참선법회 등으로 외국인과 어린이 청소년의 불교적 인성 개발에 힘썼다. 참신한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열악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 환경을 돕고자 비구니 스님 수행공동체 '나란다수행관'을 개관했다.

캄보디아 '꼭꺽 초등학교'를 건립하며 기본교육을 받기도 어려웠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도 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과 맑은 고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우 스님에게는 늘 화두였다. 스님은 자신의 첫 에세이집에서 절실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고뇌와 환희심 그리고 세상에 대해 하염없이 솟구치던 가슴 벅찬 사랑을 통해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했다고 회고한다.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에는 그동안 소중한 인연들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었던 마음이 담겼다. 현장에서 겪은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이 특유의 솔직함과 경쾌함으로 다가온다.

자우 스님은 "책을 통해 솔직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누군가는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을 맺게 되고 또 누군가는 출가의 길로 들어서서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친구가 되길 희망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반도의 중심' 강화는 어떤 섬일까?



나를채우는섬 인문학 강화도
노승대 · 김성환 · 강영경 외 12인 엮음 / 불광출판사 / 2만 원

하늘 · 땅 · 사람에 새겨진 이야기에서
반만년 역사 속 주연인 강화와 만나다

강화하면 쉽게 떠오르는 키워드 몇 가지가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부터 단군, 고려, 팔만대장경,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가장 오래된 사찰 전등사, 문장가 이규보, 고인돌, 강화순무 등 역사와 인물 그리고 먹거리가 생각난다. 이게 다일까? 〈나를 채우는 섬 인문학 강화도〉는 단순한 사료적 지식 나열에 하나씩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더해 전혀 다른 새로운 강화의 면모를 드러낸다.

'마니산 참성단은 단군을 위한 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런 오해는 접어두자. 참성단은 단군을 제사하던 평양의 단군사당과 황해도 구월산의 삼성사와 성격이 다르다. 단군은 마니산 참성단에서 하늘을 향해 제를 올린 제사장이었다.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1950년의 인천상륙작전을 결행한 맥아더 장군보다 130여 년 먼저 상륙작전을 시도한 장군이 있다면 믿을까? 1866년 강화를 침략했던 프랑스군을 물리쳐 병인양요를 끝낸 인물이 바로 양헌수 장군이다. 그는 정족산성에서 반격의 서막을 계획하고 포수로 구성된 조선군 500명과 함께 강화해협 건너 정족산성서 벌인 전투로 프랑스군을 돌려보냈다.

그런가 하면, 강화는 뛰어난 인재들의 고향이자 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진 수도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최연소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건창은 고승들의 찬을 썼고, 『능엄경』을 달달 외웠던 천재 문장가 이규보는 서쪽을 바라보며 강화에서 눈을 감았다. 게다가 한양과 서울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였던 곳도 강화다. 고려의 수도일 때 고려인들은 강화에서 팔만대장경을 기획하고 만들었다. 뿐만 아니다. 강화주민은 집에서 많은 신을 포용하며 신과 함께 살고 있고, 기독교는 강화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인천에 상륙한 성공회의 첫 조선인 신자는 강화주민이었고, 가장 오래된 성공회 한옥성당이 강화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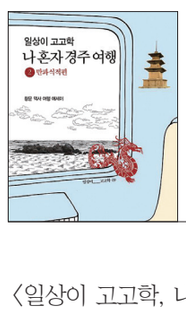
이 모든 서사가 〈나를 채우는 섬 인문학 강화도〉 한 권에 집약됐다. 여행서처럼 가벼운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서처럼 고리타분하지 않다. 한 권의 매거진처럼 산뜻한 디자인 속에 단행본의 알찬 지식이 담겼다. 두 번, 세 번 다시 볼수록 진한 여운을 주는 영화처럼 강화의 새로운 맛을 보여주는 책이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강화행 버스에 올라탄 자신을 상상해보는 것도 설레는 일이다.

임은호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강화도는 섬이다. 바람 부는 섬이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는 역사의 흔적이 실려 있다. 강화도의 해안이나 내륙에는 어딜 가나 과거의 유산이 숨 쉬며 역사를 노래한다." 26p

최초 '만파식적' 고고학 답사기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주여행2
황융/ 책읽는 고양이
1만9900원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주 여행2〉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기록돼 있는 설화 만파식적을 주제로 선보이는 최초의 고고학 답사기로 경주 곳곳을 직접 찾아가 그 역사적 의미를 고증함으로써 독자에게 진정한 고고학의 묘미를 전한다.

지금까지 만파식적의 의미를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경주라는 공간에서 각각의 유물과 유적, 또 그것들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과 장면이라는 수많은 구슬을 꿰어 하나의 결과물로 선보인 적은 없었다. 황윤 작가만의 남다른 호기심과 삼국시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아니었다면 결코 접할 수 없는 독창적인 역사 여행 아이템이라 하겠다. **임은호 기자**

영적 스승의 지혜를 읽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365일 명상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박찬준 옮김 / 판미동
1만9000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가르침을 담은 명상 잠언집. 25개국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의식 혁명〉 〈놓아 버림〉 등 기존 10여 권의 저서에서 366개 구절을 엄선해 하루에 하나씩 읽어 나갈 수 있게 구성된 책이다.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감을 주는 짧은 문장들, 그리고 집중을 돕는 50여 장의 아름다운 사진을 담아 누구나 손쉽게 명상에 잠길 수 있다. 호킨스 박사의 가르침을 접해 왔던 기존 독자들은 물론 처음 접하는 독자들까지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읽어 가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성찰의 지침서가 돼 줄 것이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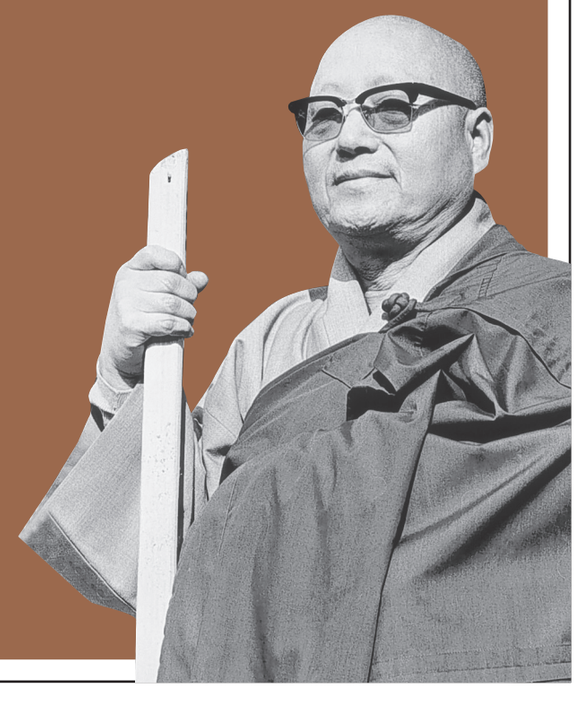
시대의 선각자 탄허 스님의 육성 법문,
열반 40년 만에 문자로 들려오다!

유불선을 꿰뚫은 한국 정신문화의 큰별 탄허 스님의
『주역』, 『논어』, 『치문』, 『서장』 등 주옥같은 명강설!!

이 책은 탄신 110주기 열반 40주기에 문자로 들려오는 탄허 스님의 생생한 육성 법문 그 자체다. 근 40년간 수백 개의 테이프에 채록된 채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한 탄허 스님의 육성 법문을 녹취하고 주석을 달아 문자로 되살렸다. 『주역』은 물론 『논어』, 『맹자』, 『도덕경』 등 여러 고전과 『치문』, 『서장』, 『선요』, 『도서』의 핵심을 유불선의 깊은 지혜로 꿰뚫은 강설은 막힘없이 명쾌하다.



禪學 탄허 스님의 선학 강설
강설 탄 허
주석 이승훈
후원 월정사
504쪽 | 양장본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